

학습영역	작품	작가	쪽수
적용학습 극·수필 01강	양주 별산대놀이(10)	작자 미상	2
적용학습 극·수필 02강	수레 제도	박지원	-
적용학습 극·수필 03강	통곡헌기(12)	허균	9
적용학습 극·수필 04강	낙치설(9)	김창흡	14
적용학습 극·수필 05강	알(17)	이강백	18
적용학습 극·수필 06강	불모지(10)	차범석	27
적용학습 극·수필 07강	장마(16)	윤흥길 원작, 윤삼육 각색	32
적용학습 극·수필 08강	뿌리 깊은 나무(11)	김영현·박상연	41
적용학습 극·수필 09강	산촌 여정(16)	이상	50
적용학습 극·수필 10강	비극은 그 아픔을 정직한 진실로 이끌어 줍니다	신영복	-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년 수능특강 / 해설 1~2쪽)

제13과장 신할아버지와 미알할미놀이

신할아버지: (도포를 입고, 꽃이 그려진 부채를 들고 등장하여) 웬 사람이 이렇게 흰 차일을 친 듯 많아? 예전에 하던 짓거리나 하여 볼까? (노래로) 아이들아 산대굿을 다 보았느냐? 탈 쓴 팔십 노인나도 보자. 나도 옛그제는 청춘이더니 홍안백발 늙은이가 되었구나. 쳐다보니 깊고 큰 골짜기와 수많은 봉우리요, 굽어 보니 흰 모래땅이로구나. 흰 구름과 푸른 시냇물이요, 황혼은 유록한데, 적막강산이 여기로구나. (노래를 부르고 나서 한숨을 쉬며) 아- 하-

미알할미: (산대놀이를 구경하며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낸다.)

신할아버지: (미알할미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그 무엇이 앞에서 곰실곰실 움직이나 했더니 청개구리 밑으로 실뱀이 쫓아다니듯 무엇 하러 늙은 것이 쫓아왔나? 그 모습 대단히 창피하네. 떡둥구리, 술, 부등가리 같은 그릇은 다 어떻게 하고 나왔나?

미알할미: (지팡이를 번쩍 들어 한 곳을 가리킨다.)

신할아버지: 본래 똑똑하니까 건넛마을 김 동지한테 맡겼어?

미알할미: (고개를 끄덕인다.)

신할아버지: 송아지와 개 새끼는 어찌했나? 오! 구장한테 맡겼어?

미알할미: (고개를 끄덕인다.)

신할아버지: 원래 모자란 사람은 아니니, 잘 알아서 하였겠지. 하지만 그것도 젊었을 때나 쓸모 있지, 지금은 쓸모가 없어. 자네도 늙고 나도 늙었으니 우리 이별이나 한번 해 볼까?

미알할미: (고개를 끄덕인다.)

신할아버지: 아, 이것 보게. 하지 말자 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자고 그러네. 할 수 없다. (노래로) 죽어라 죽어라, 제발 덕분에 죽어라. 너 죽으면 나 못 살고, 나 죽은들 너 못 살랴? 제발 덕분에 죽어라. 옥단춘이가 죽었으랴? 제발 덕분에 죽어라. 두 손뼉을 척척 치며, 노란 머리를 박박 뜯고서, 제발 덕분에 죽어라.

미알할미: (신할아버지의 노래를 듣고 분한 마음에 손뼉을 딱딱 치며, 머리를 박박 뜯고 슬피 울고 난 뒤, 독약을 먹고 땅에 쓰러지면서 배 위에다 지팡이를 놓고 죽는다.)

신할아버지: (사라진 미알할미를 찾으며) 이것 보게, 마누라가 없어졌네. 어디로 갔을까? 나는 정에 겨워 그런 말을 한 것인데, 이놈의 마누라가 달아났으니, 어디로 갔을까? 한술밥을 먹던 개라도 나가면 찾는다는데, 수십 년이나 같이 산 마누라가 없어졌으니 아니 찾을 수 있나? (놀이판을

돌면서 마누라를 찾는다.) 마누라, 마누라, 어디로 갔나? 마누라, 마누라, 어디로 갔나? (노래로) 마누라, 마누라, 어디로 갔나? 만수산 넘어 송림촌으로 갔나? 영천수 맑은 물에 귀를 씻으러 갔나? 상산에 숨어 살던 네 늙은이 바둑 혼수를 갔나? 옛날 초나라 항우와 병법을 의논하러 갔나?

(땅에 쓰러져 있는 미알할미를 보고 놀라며) 이그- 이것 보게, 거리 부정 났구나. 우리 마누라가 죽었구나. 팔십 먹은 늙은 놈이 이게 무슨 팔자냐. 이놈의 마누라가 여기서 죽었으니, 늙은 놈이 현순백결 단돈 한 푼 없고 이 모양을 당했으니 이 일을 어찌하나. 자식이라고는 팔난봉 자식 하나 있는데, 이놈에 자식도 집 나간 지가 수십 년이구나.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혹시 와 있는지도 모르겠다. 뜨물에도 배가 든다고 한번 찾아볼까? 이놈이 여기서 구경하고 있을까? (놀이판을 돌면서) 애, 도끼야, 도끼야, 애, 도끼야, 여기 있느냐?

(중략)

신할아버지: 애, 앉아서 울기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너의 누이가 하나 있는데, 짚골에서 살다가 먼짓골로 갔느니라. 네가 빨리 가서 데리고 오너라.

도끼: 어떤 제밀한 놈이 상을 당한 상제보고 사람의 죽음을 알리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갔다 오시오.

신할아버지: 네 말이 옳다마는 늙은 내가 갈 수 있느냐? 젊은 놈인 네가 속히 가서 데리고 오너라.

도끼: 알겠소. 갔다 오겠소.(제7과장에서 왜장녀* 역할을 하던, 왜장녀 탈을 쓰고 있는 사람을 보고) 여보, 누님.

도끼누이: 거 누구냐?

도끼: 내가 도끼요.

[A] **도끼누이:** 깡귀라고?

도끼: 내가 도끼라고요.

도끼누이: 대패라고?

도끼: 이거 뭐, 우기면 뭐가 생기나? 내가 도끼라고요.

도끼누이: 요새는 너 도무지 안 오더니, 왜 왔니? 네가 왔지만 이제는 단돈 한 푼도 없다. 전에는 돈 백돈 천 냥씩이나 가져갔지만 이제는 한 푼도 줄 수 없다.

도끼: 누님-, 누님-. 내가 온 것은 돈을 가지러 온 것이 아니라 부음 전하러 왔소.

도끼누이: 부음이라니 무슨 부음이란 말이나?

도끼: 어머니가 산대굿 구경을 하다가 죽었소.

도끼누이: 이놈아, 콩으로 메주를 쑤대도 곧이들리지 않는다.

(중략)

도끼누이: 아이고, 어머니. 정말 돌아가셨소? 어찌자는 말이요! 전에는 어머니 얼굴이 흰 분가루 같더니, 고생을 많이 해서 얼굴이 흑임자 다식처럼 시커멓게 되었소그려. 약이나 좀 써 봤소?

신할아버지: 약도 쓸 새가 없어서 못 썼다.

도끼누이: 그래도 약이나 좀 써 보지요. (약 같은 것을 미알할미 입에 넣자, 미알할미가 일어나서 도끼누이를 데리고 들어간다.*)

신할아버지: 애, 도끼야.

도끼: 네.

신할아버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여기 아는 친척도 없고 단돈 한 푼 없이 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이나. 우리가 돈이 있으면 지노귀굿이라도 할 텐데. 돈이 어디 있느냐? 우리끼리 굿이나 해주자.

도끼누이: 그리합니다.

(피리, 해금, 대금의 삼재이가 노랫가락 장단을 친다. 도끼누이가 무당 역할을 하며 굿을 한다.)

도끼누이: (노래로) 바람이 월궁의 달월이성이요, 일광지성마누라 바라명실로 나리오. 이 터전이 집안에 사람마다 다른 성씨 열에 열 명이 다니시더라도 덕도 탈도 보지 아니하시던 영부정 가망*에 산 간데 그늘이요, 용계신 데 소(沼)로다. 소이라 깊은마는 모래위에 해소로다. 마누라 영검 술을 깊이 몰라. 국이야 국이건마는 저 마당에 전이로다. 시절은 시절이오나 양전 마마님 시절이로다. 세상에 나홀로 있다고 한들 녀이야 녀이로다. 노양 신선의 초녘이야. 녀일랑 녀반에 담고, 신의 신체는 판에 모셔 세상에 나오신 망제님 놀고 갈까. 어이히히 웃자 초가망 이가망에 삼가망이 아니시냐? 좋다, 전물도 가망이요, 말게라 오신 가망 설게 받아 오신 가망, 사람마다 다른 성씨 열에 열 명이 다니시더라도 덕도 탈도 보지 않으시던 영부정 가망이 적적히 놀고 가시오.

- 작자 미상, 「양주 별산대놀이」

*왜장녀: 몸집이 크고 염치없는 짓을 서슴없이 잘하는 여자를 가리킨다. 앞의 과정에서 왜장녀는 자신의 딸 애사당을 목중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다.

*미알할미가 ~ 들어간다.: 여기에서 '미알할미의 퇴장'은 '미알할미의 죽음'을 뜻한다. 이후 '도끼누이'는 다시 등장하여 무당 역할을 한다.

*가망: '신(神)'의 고어인 '감'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한다. 무속 신앙에서 상당히 높은 신으로 여겨진다.

1. '탈춤 공연'과 관련지어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객들을 '웬 사람'이라고 칭하며 '신할아버지'가 연기를 시작하는 장면으로 볼 때, 관객을 극중에 참여시키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 ② '미알할미'나 '도끼'를 찾아다니는 '신할아버지'가 '놀이판을 돌면서' 움직이는 것으로 볼 때, 배우의 동선이 무대의 형태와 관련이 깊음을 알 수 있다.
- ③ '도끼'와 '도끼누이'의 대화만으로 공간적 배경이 '먼짓골'로 바뀌는 것을 볼 때, 공간적 배경의 변화가 배우의 연기만으로 가능함을 알 수 있다.
- ④ '도끼누이' 역과 '왜장녀' 역을 하는 연희자가 동일인이라는 점을 볼 때, 탈을 바꾸어 쓰는 행위로 인물을 교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삼재이'의 장단에 맞추어 '굿'을 하며 노래를 부르는 '도끼누이'의 행위를 볼 때, 탈춤이 종합적 예술 장르로서 연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우리말의 언어유희는 주로 유사한 음운이나 음절을 반복 배치해 소리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그렇다고 단순히 말소리의 재미만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말들로 언어를 배치하여 뜻밖의 의미 효과를 이끌어 내는 방식, 일반적 통사 구조를 관습과는 다르게 사용하여 의도적 오해나 실수를 자아내는 방식도 자주 사용된다. 또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을 늘어놓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을 제시하여 웃음을 유발하기도 한다.

- ① '젓골에 살다가 먼짓골로 갔느니라.'는 '재'와 '먼지'의 의미적 관련성과 '골'이라는 음절의 반복을 통해 재미를 부여한 것이군.
- ② '아버지가 갔다 오시오. / 네 말이 옳다마는'은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을 순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군.
- ③ '내가 도끼요. / 깎귀라고? / 내가 도끼라고요.'는 'ㄱ'이라는 음운을 연속적으로 활용하여 소리의 유사성을 통해 즐거움을 주고 있군.
- ④ '내가 도끼라고요. / 대패라고?'는 '도끼'라는 연장과 관련이 있는 '대패'를 언급하는 실수를 통해 재미를 준 것이군.
- ⑤ '콩으로 메주를 쏘대도 곧이들리지 않는다.'는 일반적 통사 구조를 따르지 않고, 독특하게 어순을 배열하여 재미를 부여한 것이군.

3. 작품 전체에서 [B]가 하는 역할을 <보기>와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양주 별산대놀이」에서 ‘도끼누이’는 무당의 ‘지노귀굿’을 대신해 굿을 벌인다. ‘지노귀굿’이란 죽은 이의 한을 씻겨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 망자의 가족이 무당을 불러 벌이는 굿으로, 흔히 씻김굿이라고도 한다. ‘지노귀굿’은 예기치 않은 죽음을 재(구성)하는 상호 작용 행위의 하나이다. 유족들은 굿이 끝남과 동시에 망자와의 갈등이나 애석함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떨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한다. ‘지노귀굿’은 사후 세계에 있는 망자와 현실 세계에 있는 유족들이 서로가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게 도움을 주기 위한 구체적 행위인 것이다.

- ① 관객들에게 공연이 끝났음을 알려 주는 신호로서 일상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환기해 준다.
- ② 놀이에 빠져들었던 관객들이 미알할미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③ 죽은 미알할미가 무대 위에 다시 등장하는 기회를 마련해 사후 세계에 대한 관객들의 두려움을 줄여 준다.
- ④ 신할아버가 미알할미의 요청에 따라 굿을 벌임으로써 관객들에게 지노귀굿의 전체 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 ⑤ 무당 역할을 하는 연희자가 다른 인물들의 잘못을 꾸짖는 내용을 추가해 관객들 또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돌아보게 한다.

[04~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3년 수능특강 / 해설 2쪽)

말뚝이: 그래라, 다름이 아니라 우리 댁 샌님, 서방님, 도련님께서 과일(科日)*이 당도해 과거를 보러 올라오시다가 산대굿 구경에 미쳐서 해 가는 줄 모르고 의막* 하나 못 정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강근지친(強近之親)*이 없고 아는 친구 없이 이 변화지시*에서 너를 만나니 참 불행 중 다행이다. 허니 너는 나를 봐서라도 의막 하나 정해 다오.

쇠뚝이: 애, 놈들이 그래 구경하는 데 미쳐서 의막을 못 정했던 말이나. 그리고 보니 네가 참 웅색하게 되었구나. 그럼 내가 의막을 정해 주마. (장내를 이리저리 돌고는 말뚝이에게 간다.)

말뚝이: 그래, 어떻게 되었느냐?

쇠뚝이: 암, 정했지 / **말뚝이:** 어떻게?

쇠뚝이: 혹시, 그놈들이 담배질을 하드래도 아래위가 분명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래위 칸을 만들고 뽕뽕 돌아가면서 말뚝을 돌려 박고 띠를 두르고 문을 하늘 높이 냐다.

말뚝이: 애, 그것참!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로구나.

쇠뚝이: 암, 영락없지!

말뚝이: 그 집을 들어가려면 물구나무를 서야 하겠구나.

쇠뚝이: 그야 다시 이를 말이나?

말뚝이: 그럼, 돼지 새끼들 같겠구나.

쇠뚝이: 영락없다.

말뚝이: 애, 애, 우리 댁 샌님 일행이 저기들 계시니 어서 들여 모시자.

쇠뚝이: 애, 내가 그놈들을 왜 들여 모신단 말이나?

말뚝이: 너, 그렇지 않다. 너하고 나하고 사귄 것이 불찰이지. 본정을 생각한들 나를 봐서라도 들여 모셔야 하지 않겠느냐.

쇠뚝이: 그래라, 그런데 그 양반들 어디들 계시냐?

말뚝이: 저기들 계시니 어서 들여 모시자.

쇠뚝이: 그래라. (샌님 일행이 있는 데로 간다.) 자, 처라. 아, 샌님! 아, 서방님! 아, 도련님!

말뚝이: (샌님 일행이 있는 데로 가서 채찍을 휘두르며 몰아넣는다.) ㉡꾸울, 꾸울, 꿀꿀! 두우, 두우, 두두! (쇠뚝이와 말뚝이가 샌님 일행을 돼지우리에 몰아넣는다.)

샌님: 애, 말뚝이 똑야! / **말뚝이:** 네-이!

샌님: 이 의막을 누가 정해 주었느냐.

말뚝이: 네-이! 소인이 정한 것이 아니고 강근지친 변화지시에 알 수가 없어 아는 친구 쇠뚝이 녀석을 만나 부탁했더니 그놈이 정해 주었소.

샌님: 오, 그래! 아주 대단히 정갈스럽고 깨끗해서 좋구나!

말뚝이: 그런데 샌님께서 양반이시기에 담배질을 하드래도 아래위가 있어야 할 것 같아 두 칸을 정했소.

샌님: 오, 그래!

쇠뚝이: (말뚝이에게 가서) 애, 그런데 너는 그 댁의 뭐냐?

말뚝이: 난, 그 댁의 청지기*일세.

쇠뚝이: 이놈아, 청지기가 패랭이 갓을 써?
말뚝이: ㉠청지기가 아니라 출계*일세.
쇠뚝이: 웬걸다. 출계라!
말뚝이: 애애, 그건 그렇고 우리 댁 샌님께서 의막을 누가 정해 주었느냐 하시기에 아는 친구네가 정해 주었다고 했으니 너 우리 댁 샌님을 한번 봐어라.
쇠뚝이: 내가 그놈들을 왜 본단 말이나?
말뚝이: 너, 그렇지 않다. 이다음에 우리 댁 샌님께서 벼슬 하면 너도 괜찮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 양반이 벼슬을 하기 시작하면 사닥다리 기어 올라가듯 한다. ㉡ 그럼 그때 가서 너도 뭘 하던지 한자리 한다. 혹시 청편지* 한장 받아 보는지 아느냐?
쇠뚝이: 그래, 듣고 보니 네 말도 그럴듯하다. 그놈의 음성을 들으니 용상이다. 총울치* 같다.
말뚝이: 암, 벼슬하지! 그러하니 어서 가서 우리 댁 샌님을 한번 봐어라.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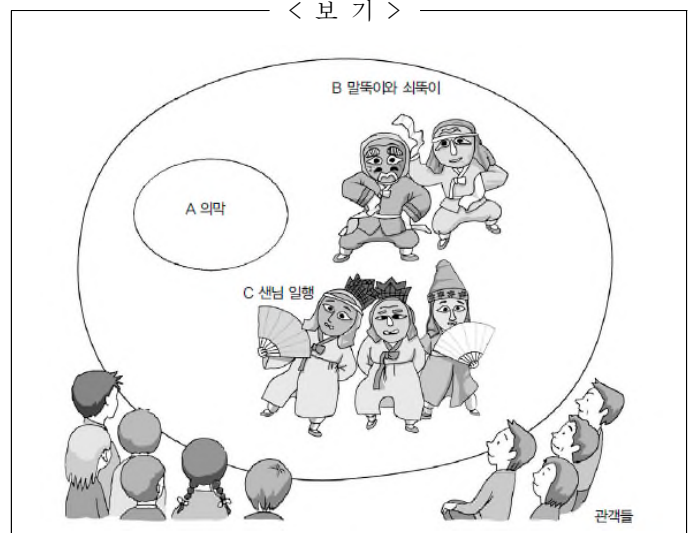
샌 님: 남의 종 쇠뚝이 잡아 디러라.
말뚝이: (안 가겠다는 쇠뚝이를 억지로 거꾸로 잡아끌고 온다.) 네, 잡아들였습니다.
샌 님: 그놈의 대가리는 정주 난리터를 갔단 말이나.
말뚝이: 그놈의 대강이가 하도 험상스러워서 샌님이 보고서 경풍*을 하실까 봐 거꾸로 잡아들였소.
샌 님: 그럼 그놈의 모가지를 빼다가 밀구녕에 짝 박아라.
말뚝이: 짝 박았요. (뺨 돌려놓는다.)
샌 님: 여봐 이놈!
쇠뚝이: 내가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 날더러 누가 이놈이라고 그래.
샌 님: 거 여봐라 이놈. 네가 이름이 있으면 무어란 말이나.
쇠뚝이: 예, 샌님이 부르기가 적당하오. 아당 아 자(字), 번개 번 자(字)요.
샌 님: 이놈 이름이 이상스럽다. 아당 아, 번개 번?
쇠뚝이: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오. 샌님도 양반이니까 두루 하늘친 따지 감을현 누르항 배우구는 천지현황을 붙여 부르지 않우. 이것도 붙여 불러요.
샌 님: 번아. / **쇠뚝이:** 왜 이건 바루 붙이지 거꾸로 붙이우.
샌 님: 애, 그 제밀할 놈의 이름 대단히 팽패롭다*. 아아아.
쇠뚝이: 이건 지랄을 허오, 붙여요 어서. ㉢십년 석달 불려도 소용없소.
샌 님: (하다못해) 아번!
말뚝이: 왜 그러느냐?

- 작자 미상, 「양주 별산대놀이 7과장 샌님 춤- 제1경 의막 사령 놀이」

*과일 : 과거를 보는 날.
 *의막 : 임시로 거처하게 된 곳.
 *강근치친 : 도움을 줄 만한 아주 가까운 친척.
 *번화지시 : 번성하고 화려한 때.
 *청지기 : 양반 집에서 잡일을 맡아 보거나 시중을 들던 사람.

*출계 : 양자로 들어가서 그 집의 대를 이음.
 *청편지 : 어떤 일을 하는 데에 권세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그 힘을 빌리기 위해 쓰는 편지.
 *총울치 : 베실, 즉 마 꺾질로 만든 실. ‘벼슬’과 음이 비슷함.
 *경풍 : 갑자기 놀라 의식을 잃고 경련하는 풍증.
 *팽패롭다 : 성질이 까다롭고 별난 데가 있다.

4. 윗글의 무대 공간을 <보기>와 같이 나타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B와 C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된다.
- ② C가 A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C의 실체를 엿볼 수 있다.
- ③ B의 ‘쇠뚝이’의 대사에 의해 A의 모습과 성격이 정해진다.
- ④ A는 무대 위에 실제로 설치되는 공간이 아니므로 관객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 ⑤ B의 ‘쇠뚝이’가 C의 거처로 A를 지정하는 모습에서 C에 대한 자신의 심리적 태도를 보여 준다.

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반어적 표현으로, 실제로는 돼지우리 같은 공간을 가리킨다.
- ② ㉡: 음성 상징어를 통해 양반을 동물로 간주하는 모습이 제시된다.
- ③ ㉢: 양반의 신분적 특권이 대물림되는 것에 대한 평민들의 반발이 나타난다.
- ④ ㉠: 관객을 둘러싸고 부정한 힘을 빌리는 청탁이 횡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 상대방에게 원하는 말을 듣기 위해 상대방을 몰아가는 말하기에 해당한다.

6. <보기>는 윗글과 관련된 수업 시간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선생님: 탈춤, 민속극에서 민중을 억압하는 양반에 대한 민중의 공격은 상당히 날카롭게 나타나는데, 양반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과장이 7 과장 섯님 춤입니다. 양반과의 갈등, 대립을 통해 양반의 권위를 근원적으로 파괴하려 하고, 자유로운 행동을 통해 현실의 억눌림을 해소하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작품에서 양반의 권위가 파괴되는 부분을 찾아보고 어떤 식으로 양반의 권위가 파괴되는지 논의해 볼까요?

- ① 저는 말뚝이와 쇠뚝이가 양반의 행위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언어에 주목했어요. ‘담배’에 행위를 낮추는 뜻을 더하는 ‘-질’을 붙여 ‘담배질’이라고 한 것에는 양반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 ② 저는 양반이 의막을 못 정한 이유에 주목했어요.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산대굿 구경에 미쳐 의막조차 구하지 못한 양반들은 향락에 빠져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망각한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요.
- ③ 저는 양반이 ‘의막’에 대해 하는 말에 주목했어요. 쇠뚝이가 마련해 준 의막에 대해 ‘정갈스럽고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은 조롱의 대상인 양반 스스로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폭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 ④ 저는 양반이 쇠뚝이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에서 주목했어요. 쇠뚝이가 양반으로 하여금 자신을 ‘아번(아버지)’이라고 부르도록 만들고 양반이 이에 따르는 것은 신분 질서를 노골적으로 비꼬는 의도가 있다고 보이네요.
- ⑤ 저는 말뚝이가 벼슬과 관련하여 양반에 대해 한 말에 주목했어요. 말뚝이가 섯님에 대해 ‘벼슬을 하기 시작하면 사닥다리 기어 올라가듯 한다.’고 말하는 것에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전시키지 않는 나태한 양반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어요.

정답 및 해설

• 극·수필 •

정답

1	④	2	⑤	3	①	4	①	5	③
6	⑤	7	③	8	④	9	해설	10	해설
11	③	12	③	13	③	14	⑤	15	④
16	④	17	①	18	⑤	19	①	20	⑤
21	④	22	④	23	③	24	④	25	④
26	⑤	27	②	28	②	29	①	30	해설
31	해설	32	④	33	③	34	⑤	35	⑤
36	①	37	②	38	③	39	④	40	⑤
41	④	42	②	43	②	44	①	45	③
46	⑤	47	③	48	②	49	⑤	50	④
51	④	52	⑤	53	②	54	④	55	③
56	⑤	57	②	58	해설	59	③	60	⑤
61	⑤	62	④	63	⑤	64	해설	65	④
66	②	67	③	68	⑤	69	③	70	③
71	⑤	72	③	73	④	74	③	75	②
76	②	77	④	78	②	79	⑤	80	③
81	③	82	④	83	④	84	③	85	①
86	①	87	②	88	④	89	④	90	⑤
91	①	92	⑤	93	④	94	②	95	③
96	⑤	97	①	98	⑤	99	②	100	⑤
101	④	102		103		104		105	

해설

1. [출제의도] 갈래별 특징, 성격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도끼누이 역과 왜장녀 역을 하는 연희자가 동일인인 것은 맞지만, 그러한 교체가 ‘탈을 바꾸어 쓰는 행위’로 정해지지 않는다. 탈춤 공연의 경우, 탈을 바꾸어 쓰지 않은 상태로 둘 이상의 인물(역할)을 연기하는 경우가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② 탈춤 공연은 일반적으로 관객들이 둘러싼 둥근 원형 무대에서 진행된다. 연희자들은 무대를 돌아다니며 관객들과 소통하거나, 관객들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면서 가면극을 진행한다. 이는 신할아버의 연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③ 탈춤을 공연할 때 공간적 배경은 별다른 무대 장치나 소도구 없이도 연희자들의 연기, 즉 행동이나 대사만으로 달라질 수 있다.
- ⑤ 도끼누이가 진행하는 ‘굿’은 「양주 별산대놀이」를 마무리하는 장면으로, 다양한 예술 장르가 탈춤 공연 안에 뒤섞여 있었음을 보여 준다.

2. [출제의도]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콩으로 메주를 쑤대도 끝이들리지 않는다.’는 속담 표현을 활용하여 등장인물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낸 말이다. 이 속담은 우리말의 일반적 통사 구조를 따르고 있으며, 재미를 주려는 목적으로 독특하게 어순을 배열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물건이 불에 완전히 타고 난 뒤에 남은 가루’를 뜻하는 ‘재’는 ‘먼지’와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다. 또한 ‘잿골’, ‘먼 것골’이라는 두 단어를 대응시켜 읽으면 ‘골’이라는 음절의 반복이 만드는 음악성과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 ② ‘네 말이 옳다마는’은 도끼의 말에 신할아버가 동의를 표현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웃음을 준다. 앞에서 도끼는 자신이 상제이므로 ‘아버지가 갔다 오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할아버는 미알할미의 남편이므로 ‘아버지’또한 상을 당한 처지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 ③ ‘도끼-각귀-도끼’라는 대사가 이어질 때, ‘ㄱ’이라는 음운이 연속적으로 활용되면서 음악적 재미가 생겨나고 있다.
- ④ ‘도끼’라는 말을 들은 도끼누이는 동생인 도끼보다 ‘대패’라

는 연장을 먼저 떠올리는데, 이러한 오해를 통해 남매가 서로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을 재미있게 드러내고 있다.

3.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B]는 「양주 별산대놀이」의 마지막 부분으로, ‘지노귀굿(씻김굿)’의 일부를 빌려서 도끼누이가 하는 대사에 해당한다. <보기>에 따르면 ‘지노귀굿’을 통해 유족들은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는 계기를 얻는다. [B]의 ‘굿’ 또한 배우들의 연극이 끝났음을 알려 주는 신호가 되는데, 특히 ‘적적히 놓고 가시오.’라는 마지막 대사는 공연이 마무리되는 상황을 드러내면서, 관객들에게 일상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환기해 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관객들이 미알함미에 대해 별다른 오해를 하고 있지 않으며, 도끼누이가 하는 ‘굿’의 내용이 미알함미와 관객의 화해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다.
- ③ 죽은 미알함미는 퇴장한 이후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 ‘굿’이라는 행위 자체가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관객들이 [B]를 하기 전에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떠올리던 상황은 아니다.
- ④ 신할아버가 미알함미의 요청에 따라 굿을 벌인 상황은 아니다. 또한 도끼누이의 ‘굿’이 ‘지노귀굿’의 전체 과정을 보여 주지는 못한다.
- ⑤ 무당 역할을 하는 연희자가 [B]에서 다른 연희자들을 꾸짖거나 질책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4. [출제의도] 무대 공간의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의막은 샌님들이 임시로 거처할 공간으로 말뚝이와 쇠뚝이에 의한 양반 조롱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공간이다. 샌님 일행이 의막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갈등의 상황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샌님들의 무능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의막이 샌님 일행과 하인인 말뚝이 일행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라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샌님 일행이 의막으로 가는 과정에서 말뚝이는 마치 돼지를 다루듯이 채찍을 휘두르며 몰아넣는데, 이에 대해 양반은 기분 나빠하거나 불만을 터트리지 않는다. 이는 양반의 실체를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쇠뚝이의 대사에 의해 의막이라는 공간의 모습(아래위 칸을 만들고 뽕뽕 돌아가면서 말뚝을 돌려 박고 띠를 두르고 문을 하늘 높이 냈다)과 성격(돼지우리)이 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서양 연극과 달리 우리나라의 전통극은 특별한 무대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작품에서도 쇠뚝이가 막대기를 가지고 의막이라는 공간을 지정하는 것이므로 관객들은 실

제 의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동원하여 의막이라는 공간을 떠올려야 한다.

- ⑤ 쇠뚝이는 의막을 통해 샌님 일행에 대한 자신의 심리적 태도가 조롱과 부정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 준다.

5.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및 효과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출계’는 ‘양자로 들어가서 그 집의 대를 이음.’을 일컫는 말이다. 이는 샌님과 그 동생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구의 상태에 있음을 은연중에 풍자한 것으로, 양반의 신분적 특권의 대물림에 대한 반발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라고 말뚝이가 얘기하고 있지만, 이는 표면적 의미와 내포적 의미가 상반되는 반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실제로 이 의막이라는 공간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아니라 돼지우리 같은 공간을 의미한다.
- ② ‘꾸울, 꾸울, 꿀꿀’이나 ‘두우, 두우, 두두’는 모두 음성상징어로 말뚝이가 의막으로 인도하는 대상을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양반에게 잘 보이면 벼슬자리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벼슬자리를 둘러싼 부정부패의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자신이 원하는 답, 즉 ‘아번(아버지)’을 듣기 전에는 십년 석달을 불러도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 상대방을 몰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출제의도] 문학사적 지식의 적용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샌님이 벼슬을 하기 시작하면 사닥다리 기어 올라가듯 한다는 것은 샌님처럼 부족한 사람도 단지 양반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높은 벼슬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즉, 능력이 아닌 신분에 의해 벼슬자리가 주어지는 불합리한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는 말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담배를 태우는 행위에 대해 ‘담배질’이라 칭하는 것은 양반들이 담배를 태우는 행위를 비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과거를 보러 올라가는 길에 산대곳에 미쳐 자신이 할 일, 즉 과거 보는 일을 잊어버린 양반의 모습은 향락에 빠져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
- ③ 의막은 양반을 조롱하기 위해 쇠뚝이가 마련한 장소인데, 이에 대해 샌님이 정갈하고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폭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양반인 샌님이 하인인 쇠뚝이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은 신분 질서에 대한 노골적인 비평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